

경찰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경찰청장 "엄정 처벌"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 예고 "경찰 명예훼손...엄정 처벌할 것" '살인예고' 한달 새 192명 붙잡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경찰

청 소속 직원 계정 사용자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

야 가입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분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해당 글 캡처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림동 흥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한 달 간 온라인 상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글' 총 430건을 수사해 이 중 184건, 192명을 검거한 상태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다. 신림동 사건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이 같은 살인 예고글은 지난 3일 서현역 흥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현재까지 검거된 이들 중 41.6%인 80명이 19세 미만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광주 무등산 '푸랭이' 수박 수확 21일 광주 북구 금곡마을 무등산 인근 밭에서 작목반 농민들이 무등산 수박(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에 비해 크기가 2~3배 크고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으며 단맛과 감칠맛이 좋다.

건설노조 "윤석열 정권,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

"고(故) 양희동 추모문화제, 합법적 행사"

장육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1일,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장 위원장과 전병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직장의실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윤

정권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16일 진행된 추모문화제도 경찰과 서울시청 측에 신고한 행사였으나 선별적으로 불허됐다"고 했다. 이들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희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는 평화로운 행사였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5월 하루아침에 동료들을 잃은 건설노동자 3만여명과 각 정당 대표, 종교단체 대표단 등이 참가한 행사가 개최됐다"며 "이는 신고된 합법적 추모행사로, 경찰과의 충돌이나 도로 점거 등 일체의 불법적 요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꿎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하라.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갈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장 위원장은 "예전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며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법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재판받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실장 역시 "영장심사를 앞둔 지금 고(故) 양희동 열사를 생각해 본다"며 "부당함에 맞서서 건설노조는 지금까지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이) 무죄이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사법부가 입증해 주기 바란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선욱기자**

집유기간에 또 '술집 무전취식·흥기 난동' 50대, 징역 3년

술집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고흥과 영광, 목포 등 일대 술집을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

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술집에서 업주 B(60·여)씨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흥기로 주점 가구를 두 차례 내리쳐서 재물을 부수기도 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의 규모를 불분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주점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폭력

적 성향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전취식은 그냥 갚기만 하면 된다", 피해자들이 신고했으니 향후 주대나 식대를 지불하지 않겠다,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